

## 黃燦鎬教授 回甲 紀念號에 부쳐서

張 旺 祿

교수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뒷길로 내려오노라면 오동나무 한 그루가 있다. 나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황찬호 교수를 연상케 된다. 넓적넓적한 잎사귀와 들판의 줄기와 큰 가지의 미끈한 樹皮 등에서 황교수의 풍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수를 라일락이나 벚꽃나무, 소나무 따위에 비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꽃에다 비유한다면 그는 민들레나 크스모스가 아니라 해바라기이다. 황교수는 그의 몸집처럼 도량도 크고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도량이 크기 때문에 그에게는 유머의 센스도 남달리 풍부하다. 그와 내가 젊었을 때 우리는 같이 성균관대학에 시간강사로 나갔는데 바로 옆교실에서 가르치는 그의 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이 계속 터져 나왔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내 클래스는 같은 교재를 다룬는데도 조용하기만 했고 단지 옆방의 웃음소리에 전염되어 미소짓는 학생이 있을 뿐이었다.

황교수를 또 새에 비유한다면 참새나 비둘기가 아니라 부엉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가 상식이 풍부하고 재치와 식견이 그의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경치 좋은 곳이 어디어디라는 화제를 꺼냈을 때 그는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한, 오래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지나가는 말로 한 이 말이 나에게 지혜가 응축된 속담같이 들리기도 했다.

황교수는 번역과 논문을 통해서 Graham Greene을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소개했고 계속 그 작가를 연구해 왔다. 학계에서도 황찬호 교수의 이름은 Graham Greene의 이름과 연결된다. 一人一技時代에 알맞는 공헌을 했다고 할 것이다.

황교수는 또한 憂國人士라고 할만하다. 그는 우리 국민이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더 질서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고 기회 있을 적마다 역설한다. 이런 면에서도 그는 사회현실과 담을 쌓은 추상파는 아니다.

황교수의 回甲에 즈음하여 「萬壽無疆」을 축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40대나 50대 초반 사람에게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그의 체력과 의욕은 아직도 청년과 같다. 우리는 다 같이 황교수의 후반생(「餘生」이라고 부르지 말자.)이 전 밤생처럼 활기차고 복될 것이 되기를 기원한다.

P  
4/20  
Sebth  
1987(6)  
C.5